

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 입장 수익도 연일 신기록



챔피언을 향한 열기 21일 광주시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KIA 타이거즈 팬들이 한국시리즈 1차전 경기를 응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KBO, 플레이오프까지 11경기 입장 수익 104억503만원 한국시리즈 1차전부터 매진...우승팀 수익 사상 최대 전망

역대급 흥행의 시즌, 입장 수익도 신기록이다. 2024시즌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 수익이 한국시리즈 시작도 하기 전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KBO 사무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두 경기, 준플레이오프 5경기, 플레이오프 4경기 등 11경기에서 기록된 입장 수익은 104억503만500원이다.

이는 지난 2012시즌 한국시리즈 포함 15경기에서 벌어들인 103억9222만6000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신기록이다.

올 시즌 수익에는 아직 한국시리즈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1차전 매진을 시작으로 포스트시즌 매진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1차전(1만9300명) 관중석도 가득 차면서 포스트시즌 17경기 연속 매진이 기록됐다. 이번 가을 포스트 시즌 누적 관중은 26만7850명이 됐다.

티켓 예매 전쟁이 벌어지는 등 남은 시리즈도 모두 매진이 예상되면서 관중수와 입장 수익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우승팀의 수익도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KBO는 포스트시즌을 치르는 데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입장 수익을 포스트시즌에 나선 5개 팀에 나눠준다.

우선 정규리그 우승팀인 KIA가 규정에 따라 배당액 중 20%를 먼저 받는다.

이어 나머지 80%가 포스트시즌 팀들에게 돌아간다.

한국시리즈 우승팀이 50%를 가져가고 준우승팀(24%),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LG 트윈스·14%), 준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KT 위즈·9%),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팀(두산 베어스·3%)에게 배당액이 차등으로 지급된다.

KIA가 7년 만에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잇고 통합 우승을 달성한다면 올 시즌 통 큰 지원을 이어왔던 구단의 특별 상급도 기대할 만하다.

올 시즌 특급 활약을 펼친 김도영과 양현종은 '더 기아 EV3'를 선물 받았다.

기아는 김도영의 최연소·최소 경기 '30홈런-30도루', 양현종의 KBO리그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기념해 전기차를 준비했다.

KIA가 통합 우승을 통해 이번 가을 역대급 수익금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기아의 지원으로 선수들도 가을 대박을 기대하고 있다.

기아는 한국시리즈 MVP에게 EV6 차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시리즈에 나선 선수들은 우승 상급에 차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한편 EV6 차량을 MVP 부상으로 준비한 기아는 KBO와 다양한 공동 마케팅도 진행한다.

한국시리즈 1차전부터 4차전까지 진행되는 경기의 사전 행사에서 EV9를 시구차로 운영한다. 시구차는 정규시즌과 마찬가지로 KIA 불펜카로도 활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기본소득, 한전공대 지원 쟁점

행안위, 전남도 국정감사

광주·전남 지자체 신뢰 부족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 검토

개교 3년 켄텍 과도한 지원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기본소득, 한전공대 지원 등이 쟁점이 됐다. 다만, 전남도 안팎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 난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짚어내지 못한 채 결할기식 쟁점 언급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3개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의 부족한 것 같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불쾌한 발언을 취소하면 내년 6월까지 (군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한)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고 물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와 관련, "(단적으로) '양심 불량'이라는 표현은 무안 군민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만큼 광주시장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고, 연내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시한 역시 대

안도 없는 무리한 설정"이라고 밝힌 뒤 "이런 부분 등에 대해 광주시가 사과하고 취소한다면 다시 한번 3차 회동을 주선해 보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최근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이 있었는데, 전남도가 전도민 10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하면 선도적인 혁신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며 "전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은 검토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협성성 살포는 신중을 기하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 주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옛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나주·화순 지역구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김 지사의 기본소득 입장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여당 의원의 지적에 지사가 자신 없

어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한전공대 지원 여부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설립돼 개교 3년째를 맞은 한전공대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한전공대 투자는 한전의 미래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전 공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온다"며 한전공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남도 안팎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힌 전남 국립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풍부한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부족 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단·축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